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MAY 2022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21

4월 Sunset Valley 골프대회



금년에도 골든클럽의 첫 골프대회를 4월21일 회원들이 모두 좋아하는 NJ의 Sunset Valley 골프장에서 가졌다. 올해에는 마스크 착용이 완화되어서 얼굴을 마주 보고 큰소리로 웃어가면서 골프를 치고 싶으셨는지 무려 38명(남 32; 여 6)이 참가하였다.

진봉일(공대50) 그리고 아드님 (진상훈), 임호순(공대52), 김영덕(공대53) 대선배님들이 노익장을 과시하시며 참여하셨고 이에 대조하여 이민제(공대70), 김치갑(의대72), 임창우(사회대79) 신입회원 세 분이 첫 출정하여 신선하고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참가자 모든 분이 서로 마스크 없이 보는 얼굴을 신기해하는 것이 마음을 푸근하게 하였다.

우리 four-some 중 한 분이 “Sunset Valley 코스는 한 겨울 칩거 후 첫 outing하기에는 너무 어렵다.”했다. Fairway는 산등성이를 가로지르고 거의 모든 green이 경사가 적지 않아 어렵기로 소문난 코스

이다. 거기에 쌀쌀한 초봄 날씨에 해마저 구름 속에서 나오질 않으니 score들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도 다른 홀의 팀들을 돌아보면 모두 밝은 얼굴로 즐겁게 치는 회원들의 모습에서 새해, 새봄을 맞는 희망과 기대 그리고 금년은 위축감을 던져버리고 활발한 한 해를 보내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골프 후에도 한 분도 먼저 떠나지 않고 19 hole에 모여 반갑게 담소하는 모습이 얼굴 마주 보며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몸소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저녁 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상 받는 데 익숙한 얼굴도 있었지만 새로 신입한 회원들도 몇 분 보여 항상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골든클럽의 면모를 볼 수 있었다. 5월18일로 계획된 NY 동창회 골프와 5월 26일의 여성 피크닉이 기대된다. ✨

뉴욕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뉴욕동창회에서는 장학기금모금을 위한 춘계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날짜: 2022년 5월 18일 (수)
시간: 오전 11시 30분 Shotgun
 (10시 30분까지 도착 바랍니다.)
장소: Walkill Country Club
주소: 40 Sands Rd, Middletown,
 NY 10941
참가비: \$120
연락: 김정필
 (201)965-7759
 email: jaypkim@keiusa.com



골든클럽 여성회원 피크닉- 행복한 수다의 시간

5 월이 초여름으로 접어들며 싱그러운 녹색의 자연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성 회원 위주로 Hudson 강변 나무그늘에 앉아, 놀이 계획에 신경쓰지 않고 얘기 꽃을 피우며 '행복한 수다'의 시간을 갖고자 하니 많이 참석하여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2년 5월 26일(목) 12:00-4:00
장소: Englewood Picnic Area,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alisades Parkway 'Exit 1'에서 Hudson 강변으로 내려갑니다.
특기사항: 간단한 점심식사와 음료 준비를 위하여 참석할 회원은 미리 연락주시기 바라며, 운전기사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연락: 고애자 201-713-7688, koaeja21@gmail.com
 남종현 201-388-3787, chonghyun63@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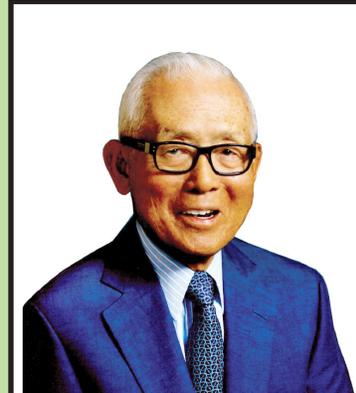
故人の 冥福을 기원합니다.



양인회 (농대58)회원께서 4월 17일 오전 9시에 82세를 一期로 永眠하셨습니다. 故人の 冥福을 빕니다.

故人께서는 골든클럽의 뉴스레터 편집과 컴퓨터 클래스 강의 그리고 다음 카페 "뉴욕에서 만나요" 운영 등 여러 방면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뉴

욕동창회의 IT 및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작년 초 부터 암으로 투병중에 계셨으며 유족으로 부인과 두 아드님을 남기셨습니다.



골든클럽의 원로이시고 뉴욕한인회장(1966-68 6대)을 역임하신 **이범선 (상대 46) 회원**께서 지난 4월 13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는 지난 16일 유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습니다.

동문회 뿐 아니라 뉴욕한인 사회에 여러가지로 많은 활동을 하신 선배님의 소천을 함께 애도하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회원동정



4월 8일, 권정덕/홍성경 내외분 초대로 계동휘/민경애 회원 환영겸 Florida 골프팀 오찬회가 뉴저지에서 있었다.



4월 13일, 산호세 장기여행에서 돌아온 한태진/안용희 내외분 초대로 손대홍회원 서울 출장 환송 만찬이 뉴저지에서 있었다.



4월 14일, 임호순 선배님과 함께, 뉴저지 방문중 시간을 내신 이준행 회장님을 모시고 점심식사와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골프대회에 진봉일 선배님을 모시고 함께 참가한 아드님 상훈씨



고애자 회원이 오랫동안 거주하던 West New York 을 떠나 단출한 Fort Lee 아파트로 4/13 이사하면서, 계속 사용할 가재도구만 옮기고 나머지는 이삿짐 센터에서 모두 폐품 처리 하도록 Downsizing 하셨는데, 빨리 회복되어 골프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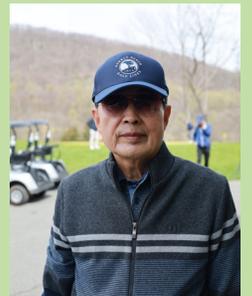
고애자
2000 Linwood Av, 12E
Fort Lee, NJ 07024
201-713-7688



골프대회에 참가한 여성회원님

입회를 환영합니다.

이민제 (공대70) Min Jea Lee
mobile:(201)888-3592
email: mklee0607@gmail.com
201 Lyncrest Road
Englewood Cliffs, NJ 07632



4월 골프대회 보고

Golf Course: Sunset Valley Golf Course

일시: 4월 21일 (목) 12시 Shotgun

참가자: 총38명

White 11

금영천 김병순 김정필 김치갑 김태일 손대홍 오순문 임창우 이민제 조달훈 홍종만

Gold 21

강에드 광선섭 권정덕 김광현 김영덕 민준기 박기환 배상규 성기로 손갑수 손경택 송학린 윤선구 윤현남 이용대 임호순 정도현 진봉일 진상훈 한영수 한태진

Red 6

남종현 송근숙 안용희 조승자 홍선경 홍정표

시상:

1부 (Gold): 1등 김광현 2등 강에드 3등 광선섭

2부 (White/Red): 1등 조달훈 2등 김태일 3등 이민제

Close pin: 김치갑 김병순 손갑수 박기환

감투상: 윤선구

결산:

항목	내용	금액	합계
수입	참가비	4,480.00	4,480.00
지출	그린피(\$79)	3002.00	4669.30
	Dinner	847.30	
	김밥	250.00	
	음료	150.00	
	상금	420.00	
결산			(189.30)

신년교례 행사보고

일시: 3월 26일 오후4시-9시

장소: Atrium of Tenafly

참석자: 81명

광선섭/곽영희 권정덕/홍선경 권태전 계동휘/민경애 금영천/금희정 김광수/김옥순 김동건/김종수 김문경/변창하 김병순 김승호/김지화 김정필/강혜미 김치갑 김한중/김한숙 김태일/이영숙 민준기/유재원 배상규 박기환/박현미 성기로/성광자 손갑수/김은애 손경택 손대홍/남종현 송영길/송현자 송학린/김선에 송혜순 여주영 오순문/오연균 오유섭/오명옥 우규환/우영순 윤선구/윤옥경 이대영/이병련 이용대/이영순 이진구/이희정 이종대/이인신 이준 이행순 임창우/정수옥 임호순 정도현 정해민 조달훈/조승자 진봉일/진명숙 최순채/한화미 최철용/최복자 허우선 홍종만/홍예경 이준희 황소희 최호중 민한별 강진영

결산:

지출	장소사용료	5800.00
	Catering	7412.00
	경품	647.49
	미니음악회	1200.00
	준비물품	210.29
	서비스 팁	200.00
	Insurance	109.49
	[지출합계]	15579.27
수입	행사참가비	7940.00
	[수입합계]	7940.00
결산		(7639.27)
기타	기념품구입(오미자 세트)	9500.00

뉴욕지역동창회 상임이사회와 임원 연석회의

상기 모임이 4월 19일 오후 6시 Fort Lee 소재 가연에서 총 18명의 동창회 임원과 단과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요 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LA에서 6/24-26로 예정된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 많은 NY 동창회 회원들이 참석하도록 홍보와 지원을 한다.
2. 강에드(사대60) 회원을 평의원회 포상 후보로 추천한다.
3. 장학기금 마련 준계 골프대회를 5월 18일 Wallkill Golf Club에서 진행한다.
4. 회칙에 따라 금영천 회장의 연임을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차기 이사회/총회에서 인준반도록 한다.
5. 2022년 행사 및 사업 계획
 - 장학기금 골프대회 개최 (상기 참조)
 - 8월 중 야외 피크닉 개최한다. 일환으로 이사회/총회를 진행한다.
 - 연말 송년회를 12월 3일 Double Tree Hotel에서 개최기로 한다.
 - 저명 강사를 모시고 Zoom 방식으로 세미나를 년1-2회 개최하

는 것을 검토한다.

6. 기타: 준회원 제도, 회장 임기 2년제 안을 논의했으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Korean & American -

2. 나의 미국 이야기 축소판

■ 우규환(사대 60)

대학원을 졸업하는 68년에 미국유학 준비로 문리대 뒤편에 있는 어학연구소에서 영어회화 공부를 1달쯤 하였다. 회화 클래스 강사는 미모의 백인 여자였는데 발음연습, intonation이 중요하다면서 “I screamed ice cream.”을 따라하라 하였다. 영화에서 미모의 여배우를 많이 보기는 했지만 가까이서 대화하기는 처음이었다. 서양여자는 다 저렇게 미인인가 꿈속을 헤매이다 출국하는 날 꿈이 산산이 깨어졌다. Northwest를 탑승했는데 stewardess는 건장하지만 미모와는 거리가 멀었다.

69년 7월 4일 오전 조용한 미네소타 화학과 건물안에서 엄청나게 큰 총소리가 들렸다. 공휴일임에도 특별히 갈 데가 없어 실험실이나와 있었다. 겁에 질려 움츠리고 있다가 복도에 나가보니 핏자국이 여러 군데 떨어져 있었다. 이 사건은 영국에서 방문교수로 와 있던 남성과 대학원 학생이던 호주 출신 여성과의 스캔들이었다. 가해자 대학원 여학생의 신분과 피해자 영국교수의 명예 실추로 모두 큰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했는데 전혀 빗나갔다. 여학생은 아무런 일 없었듯이 박사학위 연구실함을 계속했고, 영국교수는 붕대로 목덜미를 감은 채 화학과 건물 앞에 유유히 걸어 다니다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어디까지나 privacy를 존중하는 미국의 관습 때문일까?

미네소타 화학과 대학원 제도는 우선 수강능력을 시험하는 proficiency exam으로 학부졸업 수준의 기본 4과목을 통과해야 대학원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나는 첫 학기에 모두 pass 하였다. 1년 쯤 지나면 prelim exam을 보는데 내용은 대학원 전공과목의 실력을 종합 테스트하는 과거시험이다. 이 prelim을 거듭 실패하여 박사과정을 쫓겨나게 되었다. 그 때의 나의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낙제니 어떻게 할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학과 사무실 secretary에게 답안지를 볼 수 있느냐 물어 보았다. Secretary는 청을 들어주어 나의 답안지를 꺼내 주면서 혼자만 본 후에 돌려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그런데 나는 나의 답안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채점을 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쓴 답안 외에는 아무 표시가 없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불가항력임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의 참담한 심정을 도서관 음악실에서 베토벤의 전원교향악(#6 pastorale)을 들으면서 많이도 달래 보았다. 나는 76년 9월 이화여대 화학과에 부임하려 귀국하는 비행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박경원이 부른 유행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김포공항에 내렸다. “유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박사호 붙어야만 남자인가요; 나라에 충성하고 정의에 살고 친구간 의리있고 인정 베풀고; 남에겐 친절하고 겸손을 하는 이러한 남자래야 남성 넘버원! ……”

한국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가족을 따라 미국에 들어와 살면서 나는 미국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다. 미국의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그것이 궁금해서 Yellowstone National Park에 가서 3개월동안 kitchen crew로 일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였다.

미국에 관한 책도 많이 읽었다. 적지 않은 노력 후에 얻은 결론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세대차이와 성별차이와 지방색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미국의 문화를 어떻게 이방인인 내가 따라잡겠는가? 이다. 보기만해도 존경스럽게 사는 동포들의 예를 보며 배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한 예로 자랑스러운 동문 이태후 목사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

필라델피아 흑인 빈민의 친구 이태후 목사



필라델피아의 흑인 빈민가라 불리는 North Central 지역은 고립된 섬과 같다. 이 빈민가는 미주 전 지역에서도 위험 순위가 으뜸이다. 이태후 목사는 그곳에서 19년을 동네 주민으로 살고 있다.

이태후 목사는 서울대 미학과(83학번) 졸업 후, 예수님의 콜링으로 그 빈민가의 주민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이웃이 되었다. 은행도, 슈퍼마켓도, 도서관도 없다. 그는 그곳에서 길거리 청소부터 시작했다. 삭막한 집 앞에 화분을 나누어 주며 좋은 동네 주민이 되었다.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연고도 없는데도 이웃이 된 이 동양인 목사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어려운 일에 도움을 청하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다. 겨울이면 주민들에게 외투를 모아 나눠주고 여름에는 어린이들에게 썸머캠프를 열어 꿈을 심어주었다. 갈 곳이 없고 급식까지 끊기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방과 후 수업을 만들어 어린이들의 부모가 되어 주었다. 그는 말한다. “누군가 내 이웃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들이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의 또 하나의 꿈은 그들의 피난처인 커뮤니티 센터를 세우는 것이다. 그의 꿈 커뮤니티 센터는 주민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아침식사를 제공하며, 숙제할 환경과 직장을 알아볼 희망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적인 악순환으로 내몰린 주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센터를 세우는 꿈이다. 그와 꿈을 함께 나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독지가들이 그의 친구가 되길 바란다. 19년을 한결같이 가족처럼 삶을 나누는 이웃들이 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행복하다.

특권을 포기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태후 목사는 우리에게도 희망의 길로 안내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평생 사랑하는 이웃이 된 그의 삶은 따뜻한 피난처일 뿐 아니라, 보듬어주며 사랑하는 가치를 통해 희망을 노래하는 삶의 노래를 듣게 해 준다. *(이태후 목사의 특집 documentary: 맨인 블랙을 뉴욕동문회 게시판에 올려놓았다)* ❀

셰일(Shale)석유가 국제 정치, 경제에 미치는 파장

■ 오순문(사대68)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석유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자동차의 연료? 없어서는 안될 자원? 수십년이 지나면 고갈될 물질? Plastic이나 화학제품의 기초원료? 비단이나 도자기, 등을 능가하는 역사상 가장 큰 교역품목? Petro dollar를 모르면 국제정치나 20세기에 일어난 전쟁들의 원인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 US Dollar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들어 놓고, 또 최근에는 US Dollar 기축통화의 기반을 흔드는 물질? 가상화폐 또는 Digital 화폐를 비롯한 제3의 국제화폐 탄생을 촉발할 수도 있는 물질? 하늘만 한 글자가 천문, 기상, 정치, 경제, 과학, 철학, 역사..등, 평생을 배워도 안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맥이 통해 있듯이, 석유는 정치 경제 산업 과학 뿐만 아니라, “검은 Gold Rush”와 같이 인간사회의 욕망과 탐욕, 그리고 자본주의의 명암과 성장까지, 생각보다 넓고 깊게, 모든 분야와 연여(Web)있는 것은 아닐까?

석유는 미생물들이 오랜 시간 땅속에서 변화되어 천연가스와 휘발류 같은 액체와 검은 타르로 된 끈적끈적한 혼합물이다. 역사적으로는 노아의 방주에 방수용으로 쓰였던 역청으로, 중국 송나라 시대에는 등유로 쓰이면서 석유란 이름도 지어졌다. 한 러시아 과학자가 250년전 주장한 생물발생설에서는, 죽은 유기물들이 바다나 강바닥에서 진흙과 섞이고 그 위에 침전물들이 쌓이면서, 열과 압력으로 등유와 같은 물질로 변했다고 한다. 주로 주라기층과 백악기층에서 채굴되는 것으로 보아 1-2백만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탄화수소(Hydrocarbon)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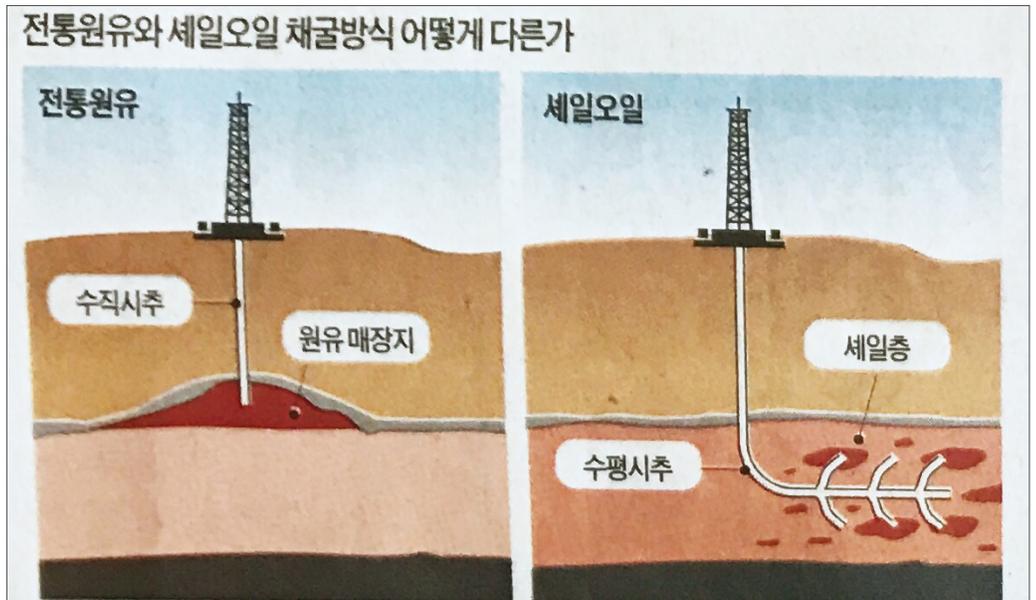
그후 1950년에 다른 러시아 과학자들은 석유가 지구 깊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자연발생설”을 주장했는데, 소행성과 혜성의 충돌로 생긴 지각의 빈틈 사이로 땅속 깊은 곳에 있던 석유가 솟아나와 지하 저유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Tiger유전은 지표면에 한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해저 1.6km의 두꺼운 화강암 지대에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방대한 양의 석유가 지구 내부 깊은 곳에 숨겨

져 있을 가능성과, 태양계의 다른 위성이나 소행성에도 물과 함께 석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토성의 한 위성에 있는 메탄(석탄가스, CH₄) 바다는 석유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에서는 1859년 Pennsylvania Titusville에서 굴착식 석유시추가 성공한 이래, “Oil Rush”가 서부 개척시대의 “Gold Rush”에 버금가는 “검은황금의 시대”를 열었다. Standard Oil은 1870년 Ohio Cleveland에서 John D. Rockefeller가 세운 후, 1890년대에는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던 거대한 석유회사다. 반독점법으로 ExxonMobil, Chevron, Amoco 등으로 해

육국(1857년)이었던 루마니아는 1차세계대전 때는 연합군측에 섰다가 독일의 침공을 받고는 원유시설을 스스로 파괴해 버렸고, 2차세계대전 때는 독일군편에 섰다가 연합군의 폭격으로 채굴정제시설이 완전히 파괴당했다.

보통 석유는 솔뚜껑 모양의 단단한 퇴적암 아래 모여 있지만, 셰일(Shale)석유는 지하 3,000m정도의 shale(혈암)의 미세한 구멍에 갇혀 있다. 전체 매장량은 보통석유의 5배에 이르지만 넓게 얇은 층으로 분포되어 있다. 금속을 절단하는데 쓰이는 water jet cutter같은 수압파쇄(Hydraulic Fracking)법으로 채굴한다. 물에 고운 모래를 섞어 초



셰일석유는 수직으로 3,000m를 시추해 셰일층에 도달하면, 수평으로 수압 파쇄하면서 고압으로 석유를 뽑아낸다.

체되었지만 지금도 석유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석유는 미국, 사우디 러시아, 캐나다, 중국, 이라크 등 약 20여개 산유국에 편중되어 있는데, 점차 고갈되어 간다는 조급함과 나라마다 꼭 필요한 자원이기때 항상 긴장을 일켜왔다. 네번의 중동전쟁, 진주만 공습, 9.11테러, 걸프전, 이라크전쟁 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사우디나 UAE 같은 산유국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나,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카다피의 리비아, 차베스의 베네주엘라, 이란 등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오히려 불행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산

고압 (500-1000기압)으로 분사해 셰일층을 깨서 석유를 추출한다. 16세기에 루마니아에서는 뜨거운 물을 셰일암에 부은 후 기름을 분리해 셰일석유를 얻었다. 미국에서는 록키산맥 동쪽 경사면인 Green River Basin에 약 2조배럴(지구 석유매장의 60%), 미국이 3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매장되어 있고, 노스다코다주와 텍사스주가 셰일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사이에 무역전쟁이 한창이었던 2012년경, 일단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셰일

석유 붐으로 인한 국제 정치의 지각변화를 예고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 교역의 60%를 파운드화가 차지하고 있었다 (1869-1914). 그러나 1,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순채권국이었던 미국으로 금이 이동하면서 영국은 1931년 금본위제를 포기하게 되고, 2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에는 New Hampshire의 Bretton Woods에서 44개국 연합국 대표들이 금 1 온스당 (전세계 금의 70%를 보유한) 미국의 35달러와의 금태환 제도를 만들고, 다른 나라 화폐들도 달러에 고정시키는 Bretton Woods 시스템에 합의한다. 그후 자연스럽게 달러가 국제 결제통화로 사용되고, 세계 각국들은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축적하게 된다.

그 후, 월남전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1971년 닉슨은 금태환제도를 끝내고, 1974년 미국은 사우디의 정권을 지켜주고, 사우디는 석유를 수출할 때 달러로만 결제하겠다고 약속해 Petro Dollar, 즉 국제교역에서 달러의 기축통화 시대를 연다. 미국은 전세계 GDP의 35%를 차지하는 경제력과 Petro Dollar를 바탕으로 전세계에 달러를 공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미국이 셰일석유 생산으로 세계제일의 산유국이며 석유 수출국이 되면서 사우디와 이란 등과의 갈등이 커지고, Petro Dollar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인플레이로 인한 미국달러의 가치하락, 세계경제에서 낮아지는 미국의 비중(23%)과 무역의 비중(8%), 사상 최대의 미국정부 부채(GDP 대비160%), 러시아나 이란에게 보여줬던 달러 리스크 등으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신뢰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달러를 외환으로 보유하면서 가치는 떨어지고 리스크만 커지는 나라들도 많아졌다.

파운드화에서 달러로 기축통화가 바뀌는 데는 20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미국달러를 대체할 나라가 아예 없다. 선진국들의 화폐를 정교한 Index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국제통화를 고안하는 방안, 가상화폐나 Digital 화폐에서 장점들을 따오는 방안 등이 논의되긴 하지만, 어떤 한 나라의 패권이나 Leadership을 떠나 기축통화의 신뢰도에 의문이 생기고 대안이 모색된다는 것은, 앞으로 올 큰 변화의 징조라 보고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꽃자리나라

■ 최진영(문리55)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풀 꺾이고 설날도 훨씬 지났지만 어쩐지 마음 속에 아픈처럼 남아있는 미진한 마음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일종의 향수 같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수십년을 살면서 아이들과 손주들까지 영어로 말하고 바쁠 때는 texting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추석과 설날에는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떡을 사 들고 오고, 설날에는 “엄마 세배하러 갈게요.” 하고 texting을 할 정도로 지키려 한다는 것이 가상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익숙한 문화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편하듯 옛 한국이 가난할 때 광부로 간호사로 독일로 갔던 사람들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 독일 마을을 만들어 살고 있듯이, 비록 문화 환경이 익숙하다 하여도 결국 한국에 돌아와 새 마을을 만드는 것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았고, 남편과 제가 한국에서 몇 년 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이들이 외국인 학교에 다녔는데, 미국인이고, 영어가 모국어인 데도 한국 얘기만 나오면 “엄마, 오늘 New York Times에 난 한국기사 보셨어요.” 하고 번갈아 texting을 합니다. 한편 아직도 역이민을 하시는 분들, 때마다 향수에 젖어 안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하고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먼 훗날 우리 손주들이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과 결혼하여 그 아이들이 지금 각지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으로 오게 되었으며,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역사를 수집하고, 기록과 영상을 보관하는 일이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도 인터뷰 요청을 받고 모든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과 기록과 영상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터뷰는 영어로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구상 시

인의 “꽃 자리나라”는 시가 떠올라 여기에 적습니다. 비록 미국, 한국, 독일, 어느 곳에 정착하여 살던지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곧 꽃자리라는 것입니다. ❀

"꽃 자리"

시인 구상

방강고 고맙고 기쁘다
 앳은 자리가 꽃자리나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앳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나라

앳은 자리가 꽃자리나라
 앳은 자리가 꽃자리나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앳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나라

나는 내가 지운 강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뉘사슴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느느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랏빛과 기쁨을 맛본다

앳은 자리가 꽃자리나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앳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나라



회원 명단 (114명 / 2022-4-24)

강교숙	김병순	최숙희	오유섭	이준행	최병우
강에드	김상만	박희병	오인석	이준희	최수용
강영선	김승호	배상규	유규환	이행순	최순채
계동휘	김영덕	성기로	유무영	이흥빈	최준희
고애자	김영만	손갑수	윤선구	임도혁	최진영
곽상준	김우영	손경택	윤종숙	임창우	최철용
곽선섭	김익성	손대홍/	윤현남	임호순	최학주
곽승용	김인형	남중현	이강홍	정도현	추재욱
구달희	김정필	손옥화	이민제	정수일	한영수
권정덕/	김종울	송근수	이상무	조달훈/	한용오
홍선경	김창수	송웅길/	이 준	조승자	한태진/
권영대	김치갑	송현자	이대연	정해민	안용희
권태전	김태일	송학린	이대영	조상근	허용웅
금영천	김한중	송혜순	이범선	주상선	허유선
김광수	김현중	신진식	이수호	주재양	홍사만
김광현	노용면	신응남	이전구	진봉일	홍정표
김동건	민준기	양인회	이종대	천병수/	홍지복
김문경	박기환	오순문	이종석	천종화	홍종만/
김문연	박준구/	오용호	이종석	최구진	홍예경

골든클럽 2022년 행사 일람 (2022-4-24)

1월	23-29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2명 참가)
3월	26일(토)	신년교례회 -Atrium of Tenafly (81명 참가)
4월	14일(목)	Hiking - Lake Skannatati -취소
	21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38명 참가)
5월	18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Walkkill
	26일(목)	여성회원 피크닉
6월	9일(목)	Golf Outing
	16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23일(목)	Zoom seminar (슬기로운 supermarket)
7월	14일(목)	Golf Outing
	28일(목)	Barnes Museum Tour, Philadelphia
8월	11일(목)	Golf Outing
	20일(토)	뉴욕지역동창회 Picnic
9월	15일(목)	Golf Outing
	18-30일	한국방문여행
10월	12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20일(목)	Harriman State Park 산행
11월	3일(목)	Golf Outing
12월	3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1월	22-28일	골프트립, West Palm Beach, Florida
4월	1일(토)	신년교례회

2022년 연회비 납부 명단 (72명 / \$7200/ 2022-4-24)

강교숙	김병순	배상규	신진식	오순문	정해민	안용희
강에드	김상만	성기로	오유섭	오용호	주재양	홍선경
강영선	김종울	손갑수	이강홍	오인석	찬병수	홍종만
권정덕	김창수	손대홍	이대연	윤선구	천종화	홍예경
계동휘	김태일	남중현	이민제	윤현남	최순채	홍정표
곽선섭	김치갑	손경택	이용대	이대영	최준희	홍지복
금영천	김정필	송근수	이전구	이종대	최진영	
김광수	김한중	송웅길	이종석	조달훈	최철용	
김광현	민준기	송현자	이행순	조승자	한영수	
김동건	박기환	송학린	임창우	진봉일	한용오	
김문경	박희병	신응남	임호순	정도현	한태진	

2022년 후원금 기부 명단 (26명 / \$13,400 / 2022-4-24)

강에드 300	김종울 200	신응남 500	이전구 1000	정해민 500
곽선섭 100	김한중 300	신진식 300	이종대 200	찬병수 300
권정덕 200	송학린 1000	오용호 300	이준행 2000	최철용 300
금영천 300	성기로 300	오유섭 100	이행순 200	한태진 500
김승호 1000	손경택 1000	이강홍 200	임호순 300	홍종만 1000
뉴욕지역동창회 1000				

2022년 입회비 납부 명단 (5명 / \$1000 / 2022-4-24)

김치갑	송혜순	이민제	임창우	허유선
-----	-----	-----	-----	-----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 2022-4-26)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

5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금영천 (약대72)
- 박기환 (문리58)
- 배상규 (약대61)
- 오순문 (사대68)
- 이강홍 (상대60)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Google Chrome 활용요령: 매주 화요일 10-12시
 Google Meet로 진행
 문의, 홍종만 646-3426-2667
 MS PowerPoint, 영상제작: 매주 토요일 10-12시
 Zoom 화상강의로 진행
 문의, 우규환 201-566-3665